

일생 빛에 시달리는 한국인

53세 남성 9,175만원으로 최대... 청년층 다중채무 많아 노년층은 소액대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빛을 많이 지고 있는 이는 53세 남성으로 9,175만원의 대출을 끼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도 빛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60세가 넘어도 2명중 1명꼴로 빛이 있고, 갚아야 할 돈도 8,000만원에 육박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발표한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거래 행태 분석 자료'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은 청년층(19~35세)부터 노년층(61세 이상)까지 대출과 이로 인한 연체의 높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청년들은 19세에 450만원의 빛을 졌다. 35세에는 대출잔액이 6,780만원으로 약 15배 늘었다. 이에 따른 대출보유율도 나이가 들수록 증가했다. 19세 때는 10%에 불과했지만 35세 때는 55%로 늘었다. 주로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은행 등에 손을 내민 것으로 신용정보원은 분석했다.

대학에 다니는 경우 취업하기 전인 25세에 연체율이 23%로 가장 높았다.

35세에는 연체율이 1.9%로 0.4%포인트 떨어졌다.

36세에서 60세까지 중장년층은 평균 대출잔액이 가장 많았다. 또 2명 중 1명꼴로 대출이 있어 대출보유율은 54%에 달했다. 2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중장년층이 속한 대부분의 가정 이 빛을 지고 산다는 얘기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8008만원이다. 결혼과 주택자금 마련 탓에 빛이 늘었다. 남성의 경우는 53세에 1인당 평균 대출이 9175만원까지 치솟아 생애 가장 많은 빛을 졌다.

반면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덕택에 연체율은 하락했다. 36세 때 1.9%였던 연체율은 60세 때 1.1%까지 떨어졌다.

노년층은 주로 노후자금과 생활비 때문에 금융기관에 손을 내밀었다. 다만 대출 규모는 나이가 들수록 줄었다. 61세 때 1인당 평균대출잔액도 7876만원이었으나 83세에는 6349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연체율은 68세 때 0.8%까지 떨어졌으나 84세에는 1.3%로 0.5%포인트 증가했다. 대출보유율은 61세 때 46%에서 85세 때 6%로 감소했다.

연체와 관련해서는 다중채무를 보유한 청년층과 소액대출이 많은 여성 노년층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은 학자금 대출 외에도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25세 이하의 신용카드 이용자, 보험마감일자 등에서 연체 발생률이 높았다. 금융거래 경험이 짧아 무분별한 금융거래의 위험이 크고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낮아 연체 위험이 있다고 신용정보원은 설명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받은 노년층 여성과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도 연체 증가가 두드러졌다.

신용정보원은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빚을 진 소액대출 보유자가 배우자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빚 상환능력이 점차 약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인재용 기자

햇살론 대출한도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성실상환자 금리 우대폭 0.6에서 최고 1.2% 감면 확대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생활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유사한 정책금융 상품과 균형을 맞춰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연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든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서 신용등급이 6~10급인 서민층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권에서 연 10.5% 이하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목적의 새희망홀씨가 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한도가 1500만원인 점과 비교해 대출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대출자도 한도가 높아진다"면서 "현재 신용등급별로 4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대출한도가 각각 1.5배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우대 폭도 늘리기로 했다. 성실상환기간이 2년 이상이면 지금은 금리를 0.6%포인트

감면했지만 이를 0.7%포인트로 늘리고 성실상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0.9%포인트 감면에서 1.2%포인트 감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년 이상은 지금은 1.2%포인트 금리를 깎아 줬지만 앞으로는 1.8%포인트로 늘어난다.

단 성실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지금과 같은 0.3%포인트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바퀴달림 등 서민 정책자금과 비슷하거나 같은 명칭을 도용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폐어 대출사기를 하는 보이스포싱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한 것과 관련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정책장터 누리꾼' 모집

전북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 정책 홍보 및 정보시장, 중소기업 인력개발 등에 참여한 '정책장터 누리꾼'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요즘 SNS가 친목 외에도 정보 공유 등의 용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SNS를 활용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업을 홍보하는 활동이다. SNS 이용이 활발한 청년층

이 대상이며 특히 전북지역 대학생 중심으로 월 1회 이상 정책행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체험하고 그 후기를 SNS를 통해 공유하는 활동을 펼친다. 이번 누리꾼 참여자는 올 1월부터 활동한 1기에 이어 내년 1월부터 활동할 2기를 모집하는 것으로, 올해 활동이 전통신장 홍보에 치우쳤던 것을 보완해 창업,벤처, 수출, R&D

등 중소기업청 정책 전반으로 홍보 대상 및 내용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참여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책체험 활동비 지원 및 봉사활동 인센티브, 청년CEO 멘토 매칭 및 다양한 분야의 기술경영혁신사업, 수출중기업 등 기업의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참여자간 실시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진행하는 활동을 도입한다. /인재용 기자



도내 대표기업 '이스타항공 잡아라'

잡영챌린지 시즌4... 이화수씨 취업 성과

전북 청년인재들의 취업오디션 프로그램 '잡영 챌린지 시즌 4'에서 이화수(28)씨가 이스타항공 취업관문을 통과했다.

전북 대표기업인 이스타항공은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잡영 챌린지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은행, 원광대학교 병원 등과 함께 참여해 젊은 청년인재들의 취업도전에 힘을 보탤다. 지난달 13일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412명의 참가자 중 3차례 예심을 통해 23: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14명의 최종 본선 진출자들이 23일 본선무대에 올라 참여기업들의 최종 면접을 봤으며, 이들 본선 진출자 가운데 4명이 이스타항공 최종 오디션 면접에 참가했다.

이 가운데 이화수(28)씨가 재차와 기를 선보여 최종 합격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날 이화수씨는 "전북을 대표하는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승무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전파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종 소식을 들은 이스타항공 이사회 회장은 "청년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북의 젊은 인재들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이 도전과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전북지역 채용 할당 시스템을 통해 35% 이상 전북인재를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선진출 오디션 이스타항공 최종 합격자인 이화수씨는 향후 이스타항공 객실승무원 공개 채용에서 채용 예정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인재용 기자

영광을 차지했다.

이날 이화수씨는 "전북을 대표하는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승무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전파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종 소식을 들은 이스타항공 이사회 회장은 "청년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북의 젊은 인재들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이 도전과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전북지역 채용 할당 시스템을 통해 35% 이상 전북인재를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선진출 오디션 이스타항공 최종 합격자인 이화수씨는 향후 이스타항공 객실승무원 공개 채용에서 채용 예정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고3 수험생 힐링 Day' 성료

전주시 효자동 아트홀서 200여명 관객 무대 위 배우와 호흡

전북은행은 23일 전주시 효자동 한해람 아트홀에서 '제3회 고3 수험생 힐링 Day'를 성황리에 마쳤다.

'고3 수험생 힐링 Day' 행사는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은행이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날 상연된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는 천방지축 사고뭉치인 여 주인공이 2년 동안 짝사랑 해온 남 주인공에게 용기 있는 고백을 하기 위해 사랑을 이뤄 주는 회사인 로 맨틱컴퍼니에 찾아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내며 수험

생들에게 재미와 감동의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고3 수험생 이외에도 문화공연 관람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을 이날 행사에 초대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으며, 총 200여명의 관객이 무대 위 배우들과 호흡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전북은행 노시현 사회공헌부장은 "고3 수험생들이 그동안 시험 준비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이번 공연 관람을 통해 맘껏 해소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 나눔을 통해 지역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익산국토청, 건설안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9점의 수상작 발표

익산국토청을 비롯한 22개기관으로 구성된 호남지역 안전실천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6년 건설안전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3D 및 VR을 활용한 건설안전 교육 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호남 지역 건설현장에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 출품된 40점의 작품에 대해 안전실천협의회 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9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창의성, 적합성, 파급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홍인표씨의 3D 및 VR을 활용한 건설안전교육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김요한이 출품한 '메이저 포인터를 이용한 타워크레인 운행 감지, 문경준이 출품한 '콘크리트 개구부 덮개 개선방안', 조경석이 출품한 '스마트 개인 안전장치' 작품에 돌아갔다.

수상작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imamoli.ga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수상작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교육 자료, 각종 행사·전시, 건설안전제도 및 안전시설물 보완 등 건설안전 업무에 활용될 계획이다.

익산국토청 감철중 건설관리실장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면서 "이번 공모전에 안전 중심의 건설현장을 구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경진원, 국비사업 유치로 중기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자생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경영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전북도의 재정여건으로 규모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정부 중앙부처의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올해에는 더욱 많은 국비사업 유치를 진행하기 위해 신규사업 발굴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국비사업의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경진원의 사업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규모있는 사업 중심, 장기 전략과 제 중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균형잡힌 사업배분 등 지원사업의 효율화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국비사업 발굴의 노력으로 경진원에서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해 역대 최대인 25개 사업에 92억원의 사업을 수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